

서울시 아이디어 제안

- 아름다운 북한산 자락에 우리의 ‘문화적 DNA’를 담은 ‘이야기 집’을 짓는 것을 제안합니다.

1. 제안 개요

- 우리나라 K-문화 콘텐츠의 고유한 매력과 차별성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‘이야기’ 전시관이 필요합니다.
- 최근 ‘K-pop 데몬 헌터스(케.데.헌)’의 인기 요인도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를 보여주어서입니다. 케.데.헌.에 외국인들이 함께 열광하고 있는 것은 작품 안에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 매력적 이야기가 잘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.
- 앞으로도 우리 옛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창작의 모티브가 될 것입니다. 우리나라의 문화적 DNA를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한층 더 중요해집니다.
- 전 세계를 매료시킨 K-문화 콘텐츠의 근원이 되는 우리 옛이야기(전래동화, 설화, 민담, 신화 등)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, 서울 시민들과 서울을 찾는 세계인들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‘K-스토리 뮤지엄’ 또는 우리 이야기 전시관 건립을 제안합니다.

2. K-스토리 뮤지엄’ 건립 필요성

- 이야기 전시관은 K-콘텐츠의 뿌리를 발굴하고 확장하는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K-스토리 뮤지엄’은 창작을 위한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.
- 우리 문화의 원형적 뿌리는 이야기입니다. 호랑이 이야기, 산신령 이야기, 도깨비 이야기 등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들은 옛이야기는 단순한 전래동화가 아니라, 우리의 고유한 정서와 세계관을 담은 ‘문화적 DNA’입니다.

- 이야기는 창작의 원형이 되고 상상력의 기초가 됩니다. 고유한 이야기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오면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창작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.
- 21세기 문화 경쟁력은 독창적인 이야기에서 나옵니다. 우리 이야기는 21세기를 이끌어나가는 K-콘텐츠의 핵심 동력입니다. 매력적인 ‘이야기’가 문화 경쟁력을 좌우합니다.
- 드라마와 영화로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‘아더왕 이야기’를 보더라도, 고유한 이야기가 가진 힘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독일 민담에 기초한 괴테의 ‘파우스트’처럼 정교하고 세련된 문학 작품도 옛이야기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.
- 우리의 호랑이, 도깨비, 산신령 이야기는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지닌 문화 자산입니다. 옛이야기에 담긴 재치와 교훈은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넷플릭스 등에서 한국적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은 우리 고유의 이야기와 상징이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창작의 원형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
- 말과 글로 전해져 온 다채롭고 풍부한 이야기를 보고 느끼는 문화 공간이 필요합니다.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전시관이 아니라,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 고유한 이야기를 확인하고 상상할 수 있는 전시관이 필요합니다.
- 그래서 서울 은평구 연서로에 우리나라 고유의 민담과 설화, 전래문학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체험할 수 있는 ‘K-스토리 뮤지엄’ 건립을 제안합니다.

3. 박제된 전시를 넘어, 이야기가 살아있는 ‘K-스토리 뮤지엄’

3.1. ‘이야기가 살아있는’ 신개념 문화 공간

- K-스토리 뮤지엄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몰입형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문화를 보여주고, 이야기와 관련된 당시 삶의 방식과 역사적 배경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.
- K-스토리 뮤지엄은 이야기 속 시대 배경과 생활상, 주인공의 행적을 AR(증강현

실), VR(가상현실) 등 실감형 기술로 구현하여, 민담, 설화, 전래동화 등을 시각·청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여 관람객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듯한 몰입 경험을 제공합니다.

[구체적 아이디어]

- (상설 전시) 디지털로 살아나는 이야기 속 세상
 - AR 도슨트: 스마트폰으로 전시품을 비추면 관련 이야기 속 도깨비나 동물이 나타나 설명을 진행
 - VR 체험관: '해님달님'의 동아줄, '심청전'의 인당수 등 이야기 클라이맥스를 직접 체험
 - 인터랙티브 Map: 내가 사는 동네에 얹힌 옛이야기를 찾아보는 참여형 지도
- 우리 다채로운 옛이야기에서 문화적 원형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이야기와 관련된 생활 물품과 역사를 함께 전시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역사와 유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,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- 기존 박물관의 정적인 유물 전시는 관람객, 특히 어린이와 외국인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. 대부분의 전시관에 가면 옛날 물품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 사실 별 감흥이 없습니다. 하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과 물품이 사람들의 삶과 어떠한 의미와 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. 역사적 사실도 더 이상 무미건조한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그 안에서 희로애락을 느끼고 다양한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숨 쉬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관심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습니다.

3.2. 세대와 세계를 잇는 이야기 마당

- K-스토리 뮤지엄은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층 대상 창작 교육을 연계하여 세대가 교감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.
- 또한 우리나라의 매력적 이야기를 재해석한 연극과 인형극, 뮤지컬을 정기적으로 공연함으로써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.
- 그리고 국내외 웹툰, 시나리오, 동화 작가 지망생들을 위한 창작 자료를 제공하여 K-스토리 인큐베이팅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.

[구체적 아이디어]

- 세대 공감 프로그램 : 어르신들이 '살아있는 이야기꾼'이 되어 아이들에게 직접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 마련 (어르신 일자리 창출 연계)
- 어린이·청소년 대상 창작 워크숍 및 공모전 개최
- 정기 공연: 전문 극단 및 청년 예술가들이 전래동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마당극, 인형극, 창작 뮤지컬 공연
- 글로벌 워크숍: 외국인 창작자들을 초청하여 한국 이야기를 주제로 한 콘텐츠 제작 협업

3.3.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

- 북한산 등산 등 기존 관광 코스와 연계하여, 한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를 경험하려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.
- 그리고 이야기 속 캐릭터와 연계된 현대적 디자인의 문화상품(굿즈) 개발 및 판매는 부가적인 경제 효과와 함께 K-문화의 매력을 일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. 지역 소상공인과 협업한 문화상품 개발은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입니다.

4. 최적 입지: 북한산을 가까이 마주한 은평구 연서로

- K-스토리 뮤지엄'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북한산 자락의 은평구 연서로를 제안합니다.
- 북한산의 대체 불가능한 자연 환경과 함께, 은평한옥마을, 진관사, 한국고전번역원 등의 문화 인프라가 함께 어우러져 매력적인 '스마트 파워'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4.1. 북한산 자연과의 시너지 : 이야기 속 세상이 현실로 체험

- 한국 전통 설화는 대부분 '산'을 배경으로 합니다. 특히 산신령, 호랑이, 나무꾼 등 산과 관련된 옛이야기가 많아, 북한산의 풍광은 이야기의 배경으로 강력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. 이야기의 매력을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풍

경과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.

- 은평구 연서로는 우리나라 대표적 명산인 북한산을 가까이 마주하고 있습니다. 책과 영상으로 보던 산신령 이야기가 뮤지엄 창밖의 실제 북한산 풍경과 겹칠 때, 관람객은 깊은 감동을 받으며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. 북한산을 가깝게 바라보는 곳에 K-스토리 뮤지엄이 건립되면 그 매력이 한층 더 커집니다.
- 은평구에 건립되는 K-스토리 뮤지엄은 우리 이야기의 매력만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세계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. 서울의 큰 매력은 도시에서 자연을 언제나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북한산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은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감탄하는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. 요즘 우리나라 등산 문화를 외국 관광객들도 함께 즐길 만큼 서울 자연환경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이야기에 이끌려 K-스토리 뮤지엄을 찾는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산을 더 사랑하고 찾게 될 것입니다.
- 더군다나 은평구는 ‘북한산’과 ‘문학’을 핵심 가치로 강조하고 있으므로, 북한산에 마련되는 ‘이야기 전시관’은 은평구에 정말 적합한 문화공간이 됩니다.

4.2. 문화 인프라와의 연계성: K-스토리 문화 벨트

- 은평구 연서로는 북한산 등산로, 은평한옥마을, 북한산 둘레길, 진관사 템플스테이, 사비나미술관, 한국고전번역원 등 기존 문화·관광 자원의 중심에 위치합니다.
- 이곳에 ‘K-스토리 뮤지엄’이 건립되면 기존의 개별 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엮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. 이야기 기반의 테마 문화지구 조성이 가능합니다.
- 예를 들면, ‘K-스토리 뮤지엄에서 이야기 체험 → 한옥마을에서 고즈넉함 느끼기 → 한옥박물관 관람 → 북한산에서 이야기 현장 답사’로 이어지는 동선을 구성하여 ‘K-스토리 투어’ 코스 개발이 가능합니다.

4.3. 세대와 세대를 잇는 문화의 장

- 은평구는 할머니, 할아버지 세대와 어린이 세대의 비율이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아 어르신 세대의 지혜와 미래 세대의 잠재력이 공존하는 곳입니다. 우리 전

통문학을 전수하고(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) 이를 받아들이어 창조적으로 키우는(어린이 세대) 이야기 전시관의 본질과 잘 어울립니다.

- 은평구 연서로 인근에는 어린이집, 초등학교, 중학교가 밀집해 있어서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,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과도 가까워 어르신들이 이야기 전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거나 시민 도슨트로 활동하시기에 수월한 장소입니다.
- 할머니,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K-컨텐츠의 정체성을 품고 성장하면서 세대 간 문화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. 어르신(살아있는 이야기꾼)과 어린이(미래의 창작자)가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.

5. ‘K-스토리 뮤지엄’ 은 21세기 문화 리더 서울의 필수재!

- ‘K-스토리 뮤지엄’ 건립은 단순한 박물관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. 우리 고유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매력적인 K-문화의 뿌리를 지키고 확장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와 서울의 진짜 매력을 보여주는 전략적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.
- 은평구 연서로는 그 비전을 실현할 자연적, 문화적, 사회적 맥락을 모두 면에서 최적의 입지를 갖춘 장소입니다.
- ‘K-스토리 뮤지엄’ 은 서울시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미래를 위한 제안에 깊은 관심과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.